

『위대한 개츠비』의 번역 문체 비교 연구 — 심리적 시점을 중심으로 — *

이 세 희 · 최 희 경
(한국외대)

1. 서론

다음은 스콧 피츠제럴드(F. Scott Fitzgerald)의 *The Great Gatsby*에 나오는 한 대목을 두 개의 번역 텍스트에서 발췌한 예문이다.

- (a) 예전에 댄 코디와 겪은 이상한 일들에 대해 들은 것은 바로 그날이었다.
- (b) 그가 내게 댄 코디와 함께했던 자신의 젊은 시절의 낯선 이야기를 들려준 것은 그날 밤이었다.

(a)는 소설가이자 번역가로도 활동하는 김영하의 번역이며 (b)는 번역가 이정서의 것이다. 두 문장은 서술자가 새로운 정보를 접하게 된 계기를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그러나 두 문장이 독자에게 주는 느낌은 사뭇 다르다. 구체적으로 (a)를 읽은 독자는 서술자의 입장에 서서 누군가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듣는’ 장면을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b)를 읽은 독자는 서술자가 아니라 서술되고 있는 대상인 ‘그’가 이야기를 ‘전달하는’ 장면을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다시 말해 전자에서는 1인칭 서술자인 ‘나(I)’가 독자 가까이, 그리고 서술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인물인 ‘그(he)’가 멀리 위치하고 있으나, 후자에서는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그’에게 초점이 향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원문을 번역한 글이지만 시점(point of view)의 차이로 독자에게 전달되는, 또는 독자가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진다.

위 사례처럼 같은 정보를 전달하더라도 글쓴이가 글을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독자는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송요인(2014: 17)은 이처럼 “담론의 ‘어조’(tone)와 ‘맛’(flavor)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다차원적인 특징”을 문체(style)라고 하였다. ‘style’이라는 말은 원래 옛날 로마인이 대필자를 통해 사용했던 필기도구인 ‘stylus’에서 기원한다(Hartwell 1982, 조일제 2010: 12-13에서 재인용). 하지만 그 쓰임이 확장, 파생되어 오늘날 문체는 “화가, 조각가, 작가, 혹은 음악가 더 나아가 어떤 것을 창조하는 누구든지 그들이 자기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방식”(조일제 2010: 13), “특정 텍스트에 나타나는 언어 특성”(Leech and Short 2007: 11),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특징으로 나타나는 일종의 지문”(Baker 2000: 245)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나아가 번역 문체를 인지적 관점에서 고찰한 보즈-바이어(Boase-Beier 2006: 4)는 “인지된 특유의 표현 방식”(Wales 2001: 371)이라는 단순한 정의야말로 문체에 가장 완벽히 들어맞는 표현이라고 하였다. 조금씩 관점이 다른 듯하지만 이들 정의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결국 문체란 무언가를 표현하는 데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 혹은 ‘방식’에 초점을 둔 개념으로서 ‘무엇’을 말하는가보다 ‘어떻게’ 말하는가가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서두에서 살펴본 예시 또한 시점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시점이 동일 원문에서 출발한 두 번역문의 문체가 달라지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짧은 예시지만 이처럼 원문과 번역문 간에 서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번역가들이 개입하는 순간 문체적 등가성은 담보하기 어려운 개념이 된다. 여기서 번역 문체 연구의 다면적인 관점을 제안한 보즈-바이어

* 이 연구는 2018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2006: 5)의 논의가 매우 유용하다. 그녀는 번역 문체가 저자의 선택으로서의 원문과 원문의 독자뿐만 아니라, 번역가의 선택으로서의 번역문과 번역문의 독자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고찰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번역가가 달라지면 문체적 선택도 달라지고 원문과의 문체적 등가성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고는 이와 같은 번역가의 선택에 따른 번역 텍스트 간 문체 차이를 시점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시점은 독자가 소설 속 허구의 세계를 특정 참여자(서술자 또는 등장인물)가 이해한 ‘현실’(reality)로 받아들이고 저자의 태도를 인지할 수 있게 하는 문체의 대인적 기능을 담당(Leech and Short 2007: 139-40, 218)하며, 이야기가 전달되는 틀(frame)이나 서사구조(narrative organisation)로서 이야기가 지니는 느낌과 색감, 그리고 질감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체 요소다(Simpson 2014: 28). 따라서 시점은 번역 문체 연구의 중요한 관점인 번역가의 선택과 독자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는 데 매우 적합한 표지라 할 수 있다. 분석 텍스트는 스콧 피츠제럴드의 *The Great Gatsby*와 두 개의 국문 번역본 『위대한 개츠비』로 한다. *The Great Gatsby*는 주제를 구현하고 인물의 모습을 묘사하는 데 시점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저자가 다양한 시점을 번갈아 가며 전략적으로 사용(Liu 2010)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번역가들의 선택을 살펴보기 적합한 텍스트다. 구체적으로 *The Great Gatsby* 원문에서 저자가 양태와 심리지각어휘(verba sentiendi)를 통해 구현한 심리적 시점¹⁾의 다양한 양상이 두 개의 번역 텍스트에서 어떻게 재 생산되었는지를 비교해보고, 두 번역의 시점에 차이가 나타난다면 그 배경 또는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번역 문체 연구

번역의 문체는 원문의 문체에 더해 추가적인 이해와 고려를 필요로 한다.

1) 심리적 시점에 관해서는 2.2에서 설명한다.

저자와 목표문화권 독자 사이에 번역가의 개입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번역 문체 연구에는 원문과 번역문의 문체 차이를 살펴볼 것인지, 혹은 번역문 자체의 문체를 분석할 것인지를 두 측면이 존재한다. 조의연(2012: 197-98)은 후자를 맘캐어(Malmkjær 2004)를 따라 번역문체론(translational stylistics)이라 칭하고, 번역문체론의 문체 연구는 “번역가의 목소리, 이념, 태도 등이 문체를 통하여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보이는 것”이며 “비록 번역 텍스트 자체의 문체를 연구하더라도 ‘번역문체론’은 원천텍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번역 텍스트의 문체를 분석한다”라고 논한다.

한편 보즈-바이어(2006: 5)는 번역에서의 문체 분석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좀 더 유용한 제안을 한다. 그녀는 번역 문체를 총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자의 선택이 반영된 원천텍스트의 문체를 살펴본다. 둘째, (번역가를 포함한) 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원천텍스트의 문체를 살펴본다. 셋째, 번역가의 선택이 반영된 목표텍스트의 문체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목표문화권의) 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목표텍스트의 문체를 살펴본다. 보즈-바이어는 그중 번역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번역 문체 연구에서 가장 주된 관심사가 된다고 하였다. 언급된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번역 문체 연구가 번역 텍스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원문과의 관계 속에서 문체의 특징을 분석하고 고찰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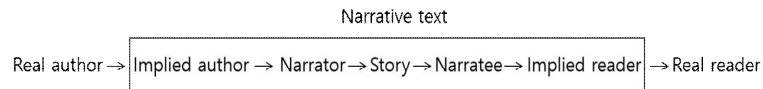
그렇다면 문체는 어떤 요소를 통해 그 독특한 특징을 드러내 보일까? 심슨(Simpson 2014: 5-6)은 음운, 필적, 형태, 통사, 어휘, 의미, 화용, 담화 등 다양한 언어 층위가 모두 문체 연구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나아가 각각의 요소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작동하며, 이들 요소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사실이 문체 이해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리치와 쇼트(2007: 60-66)는 모든 문체 분석이 저자의 언어 선택 기저에 있는 미적 원리를 탐색하는 과정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문체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범주로 어휘, 문법, 비유법, 맥락²⁾과 결속성 등을 제시하고 각 범주별로 분석 가능한 세부적

2) 본고의 관심사인 시점은 맥락의 범주 안에서 문체 표지로 분석할 수 있다(Leech and Short 2007: 64).

인 문체 표지³⁾(style marker)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문체는 매우 광범위하고 다차원적으로 논의될 수 있으므로 분석 대상 텍스트에서 어떤 요소(표지)가 해당 텍스트의 문체를 다른 텍스트와 차별화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하는지 파악하는 일이 문체 연구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다양한 문체 표지 중에서 다음을 이유로 시점에 주목해 번역 텍스트의 문체를 분석한다. 첫째, 시점은 단지 서술구조를 나타내는 기교적 도구가 아니라 소설의 미학적 가치를 결정하고 작가와 독자 사이의 문학적 상관 관계를 표현하는 다차원적인 기능을 한다(Lanser 1981). 둘째, 시점은 저자가 텍스트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 메시지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다시 말해 텍스트의 내용은 저자로부터 출발하여 텍스트 속의 화자와 청자를 거쳐 독자에게 전달된다(Chatman 1978: 151)(<그림 1> 참조). 시점은 문체의 대인적 기능을 담당하고(Leech and Short 2007: 139-40, 218) 텍스트의 뼈대를 구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Simpson 2014: 28)에서 작가, 화자, 인물, 그리고 청중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Lanser 1981: 13). 셋째,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위대한 개츠비』에서는 시점이 독특한 문체를 구성하고 내용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치로 작용한다(고영란 2012; Liu 2010).

(그림 1) 채트만의 서사구조



시점은 전술한 번역 문체 연구의 주요 관점(Boase-Beier 2006: 5)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요소로 주목할 문체 표지이기도 하다. 다음 절에서 시점에 대한 상세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한다.

2.2 시점

문학작품에서 시점은 “서술되고 있는 상황 또는 사건을 표현하는 방식에 관한 물리적, 심리적, 이데올로기적 입장”(Herman et al. 2005: 442), 또는 “서술자에게 작중 세계의 모습을 제공하는 무언가의 장치”(박진수 2003: 3) 등으로 정의된다. 시점은 이야기가 전달되는 일종의 뼈대로서 단지 창작 기법뿐만 아니라 내용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기 때문에 독자의 독서 행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박진수 2003: 4). 다시 말해 시점은 서술자가 이야기 속의 사건이나 등장인물을 묘사하는 일종의 서술방식으로, 어떤 시점으로 이야기를 서술하는가에 따라 독자가 같은 명제에 대해 다른 해석을 하거나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시점은 언어학, 문학, 영화학, 미술학 등 여러 학문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다양한 개념과 정의 때문에 시점을 이해하는 데 오히려 혼란이 있기도 하므로(Lanser 1981: 13; Neary 2014: 175), 문학 텍스트의 시점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후대의 시점 이론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유스펜스키(Uspensky 1973)의 이론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스펜스키는 다양한 시점을 살펴봄으로써 문학 텍스트의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 시점을 시공간적, 표현적, 이데올로기적, 심리적 시점으로 분류하였다. 우선 시간적 시점은 서술자가 시간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며, 공간적 시점은 서술자가 취하는 시각적인 각도를 의미한다. 시간과 공간은 떼어놓을 수 없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유스펜스키는 이 두 개념을 합쳐 시공간적 시점으로 불렀다. 표현적 시점은 사건 또는 등장인물을 묘사할 때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여 서술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데올로기적 시점은 세상을 향한 일종의 평가 체계이자 표면 구조가 아닌 심층 구조에 관한 논의이며, 시공간적, 심리적, 표현적 시점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등장인물의 주관적 견해와 판단을 드러내는 이야기를 서술할지 또는 객관적인 이야기를 서술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는 심리적 시점으로 분류된다. 본고에서는 상기 네 가지 분류 중 심리적 시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데, 이는 심리적 시점이 문학 텍스트 분석에서 가장 논의가 활발한 영역으로, 문학과 언어의 창의성을 가장 잘 드러내 보이는 요소이자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지표가 되기 때문이

3) 문체를 형성하는 두드러진 특징(Leech and Short 2007: 56), 구체적으로 일체의 맥락에서 유일하게 나타나거나 가장 자주 또는 드물게 나타나는 언어적 특징(Enkvist 1964: 34, Leech and Short 2007: 58에서 재인용)을 말한다.

다(Neary 2014: 177). 실제로 유스펜스키(1973)를 뒤이어 심리적 시점에 관한 이론이 다수 발전해왔다.

먼저 파올러(Fowler 1986/1996)는 심리적 시점을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내적시점 A(Internal Type A)는 대개 1인칭 서술자가 등장인물에 대한 감정, 평가 등을 분명히 표현하는 매우 주관적인 서술방식이다. 둘째, 내적시점 B(Internal Type B)는 전지전능한 3인칭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이며 셋째, 외적시점 C(External Type C)는 가장 비인격화되고 객관적인 3인칭 시점의 서술로서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생각이나 감정에 관여하거나 명시적으로 나타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외적시점 D(External Type D)는 1인칭 서술자가 ‘seemed’ 또는 ‘appeared’와 같은 비사실적 동사(non-factive verb)를 사용하여 등장인물의 생각이나 감정을 모르는 ‘척’(pretending)하는 서술방식을 의미한다.

〈표 1〉 파올러의 심리적 시점 유형

시점 유형		주요 내용
내적시점	Type A	1인칭 서술자의 주관적 서술
	Type B	전지적 3인칭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
외적시점	Type C	3인칭 서술자의 객관적 서술
	Type D	1인칭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생각이나 감정을 모르는 척(pretending) 서술

심슨(1993)은 심리적 시점을 잘 드러내 보이는 언어요소로 생각과 감정 등을 표현하는 심리지각어휘(verba sentiendi)⁴⁾와 양태(modality)가 있다고 제안하면서, 심리적 시점에 양태 개념을 덧붙여 논의를 발전시킨다. 양태란 어떤 명제 혹은 사건의 진실에 관한 화자의 태도나 의견을 의미하는데, 심슨은 영어에서 발견되는 양태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Simpson 1993: 43-47)⁵⁾. 우선

첫째는 의무(duty)나 책임(obligation)의 정도에 관한 화자의 태도와 관련된 의무양태(deontic modality)로서 ‘must, should, be allowed, essential’과 같은 어휘가 의무양태를 나타내는 표지가 된다. 둘째는 욕망(desire)과 관련된 희망양태(boulomaic modality)로 ‘hope, wish, regret, hopefully’와 같은 표현이 대표적이다. 셋째는 명제의 진실성에 대해 화자가 지닌 자신감의 정도와 관련된 인식양태(epistemic modality)로서 ‘could, suppose, certain, maybe, probably’ 등과 같은 어휘를 통해 화자의 태도를 짐작해볼 수 있다. 마지막은 명제의 진실성에 관한 화자의 태도 중에서도 주로 인간의 인지능력, 특히 시각적 인지와 관련된 지각양태(perception modality)인데, ‘clear, obvious’ 등이 지각양태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심슨(1993: 50-51)은 파올러(1986/1996)의 모델을 기초로 위와 같은 양태 개념을 시점과 결부하여 확장한 모델을 제시한다. 우선 심슨은 서술을 1인칭 시점인 카테고리A와 3인칭 시점인 카테고리B로 분류하고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의식 밖에서 사건을 기술하는지, 혹은 등장인물의 의식 안에서 사건을 기술하는지에 따라 카테고리B를 다시 서술자 모드(Narratorial Mode (N))와 반영자 모드(Reflector Mode (R))로 구분한다. 나아가 각 범주는 다시 어떤 유형의 양태가 사용되는지에 따라 긍정(positive), 부정(negative), 중립(neutral)의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긍정양태는 서술자가 의무, 책임, 욕망 등의 표현을 사용해 등장인물의 내면 의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으로 의무양태와 희망양태를 포함한다. 부정양태는 서술자가 이야기 속의 사건이나 등장인물에 관해 불확실한 태도를 지니는 것으로 인식양태와 지각양태를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중립양태는 서술자의 심리적 평가가 드러나지 않아 양태가 부재한 경우다.

4) ‘심리지각어휘’라는 용어는 이경희(2015)에서 사용한 용어를 차용하였다.

5) 양태는 학자별로, 언어별로 개념의 범위나 분류가 매우 다양하며 모호성이 많은 개념이다(임동훈 2008). 그중 본고는 심슨(1993)이 제시한 심리적 시점 분석 모델에 적용된 양태 분류를 따라 ST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다만 ST에 나타나는 양태표현이 한국어로

번역되었을 때는 전술한 분류의 모호성으로 심슨의 분류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는 한국어 양태 분류에 따른 설명을 각주에 덧붙이기로 한다.

〈표 2〉 심슨의 심리적 시점 유형

시점		양태	주요 내용
카테고리A		긍정	1인칭, 의무/희망 양태
		부정	1인칭, 인식/지각 양태
		중립	1인칭, 양태 부재
카테고리B	서술자 모드(N)	긍정	3인칭, 인물의 의식 밖에 존재, 의무/희망 양태
		부정	3인칭, 인물의 의식 밖에 존재, 인식/지각 양태
		중립	3인칭, 인물의 의식 밖에 존재, 양태 부재
	반영자 모드(R)	긍정	3인칭, 인물의 내부 의식 다름, 의무/희망 양태
		부정	3인칭, 인물의 내부 의식 다름, 인식/지각 양태
		중립	3인칭, 인물의 내부 의식 다름, 양태 부재

정리하면 심리적 시점은 서술자가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와 입장을 지니고 있고 이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그 핵심으로 한다. 같은 명제라 해도 서술자가 어떠한 태도를 지니는지, 또 어떤 서술방법으로 그 내용을 표현하는지에 따라 달리 전달될 수 있다. 번역에 적용해 보면 번역가들은 같은 원문을 번역하더라도 해당 텍스트의 등장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다른 해석을 하고 다른 태도를 취해 번역 텍스트에 반영할 수 있다. 이는 독자가 같은 원문에서 출발한 다양한 번역 텍스트를 읽고 서로 다른 느낌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2.3 선행연구

시점을 주제로 번역 문제를 고찰한 선행연구로는 우선 박진수(2003)를 들 수 있다. 그는 1968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가와바타 야스나리(Kawabata Yasunari, かわばたやすなり)의 『설국』을 원천텍스트로 하는 영어 번역과 한

국어 번역 간에 시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 (a) 국경의 긴 터널을 벗어나자 설국이었다.
- (b) 기차는 긴 터널에서 벗어나 설국으로 나왔다.

위 두 문장은 『설국』에 나오는 한 대목으로, (a)는 일본어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문장이며 (b)는 사이덴스티커(Edward G. Seidensticker)의 영어 번역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한 문장이다. 두 문장은 기차가 터널을 빠져나왔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그러나 두 문장이 독자에게 주는 느낌은 전혀 다르다. 전자를 읽은 독자는 감잡한 터널 안에서 맞은편에 보이는 터널의 출구를 빠져나오는 장면을 상상할 것이다. 그러나 후자를 읽은 독자는 터널 밖에서 터널을 빠져나오는 기차를 보고 있는 장면을 떠올릴 것이다. 다시 말해 전자는 독자가 터널의 안에 존재하지만 후자는 독자가 터널 밖에 위치하게 된다(박진수 2003: 5-7).

이경희(2015)는 레이먼드 카버(Raymond Carver)의 *Cathedral*과 두 개의 한국어 번역 『대성당』에 나타나는 양태의 출현 횟수가 다르다는 점을 정량적으로 살펴보고, 양태의 사용에 따라 서술자가 사건과 인물을 바라보는 인식이 각 번역 텍스트에서 다르게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박진수(2003)와 이경희(2015) 모두 같은 원천텍스트에서 출발한 복수의 번역 텍스트에 나타나는 시점 차이를 고찰하고 시점의 차이가 독자의 독서 행위와 해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본고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박진수(2003)는 시점의 차이가 번역가의 선택에 의한 결과라기보다는 각 언어 체계가 지니는 상이한 문장구조에 따른 결과로 보고 있으며, 이경희(2015)는 다양한 심리적 시점의 유형, 이를테면 내적서술과 외적서술,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 등의 분류에 기초한 분석보다 양태에 초점을 두고 있어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양태와 결합한 시점의 변이 분석과는 차이가 있다.

그 외에 여성 번역가의 화용, 통사론적 언어 선택을 연구한 김동미(2007), 『위대한 개츠비』의 두 번역본에 나타나는 선택적 변이를 연구한 유한내(2014)는 시점과 관련한 번역 문제 연구는 아니지만 본고의 연구 관심 중 하나인 번역가의 선택을 논의한 연구들이다. 그중 유한내(2014)는 번역 과정에서 언어적 차이

로 인해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의무적 변이(obligatory shift)를 제외한 선택적 변이(optional shift)를 중심으로 『위대한 개츠비』의 두 번역자별 문체를 분석하였다. 본고와 동일한 텍스트로 번역 문체를 고찰하고 있으나 ‘확대, 축소, 순서 변이’ 현상, 즉 단어, 구, 절의 측면에서 TT가 ST에 비해 길어졌는지 혹은 짧아졌는지, 순서에 변화가 생겼는지를 중심으로 번역가의 문체를 분석한다. 이 점에서 심리적 시점에 초점을 두고 복수의 번역 텍스트 간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하는 본고와는 차이가 크다.

해외 연구로는 보쑤(Bosseaux 2007)가 대표적이다. 보쑤는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의 두 소설 *To the Light House*와 *The Wave*, 그리고 각각 두 개와 세 개의 프랑스어 번역본에서 직시(deixis), 동사성(transitivity), 양태, 그리고 자유간접화법을 중심으로 한 시점의 변이 양상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원서와 번역서뿐만 아니라 복수의 번역서 간에도 시점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이는 번역가의 선택에 따른 번역가의 문체이며 이로 인해 각 텍스트의 느낌(feel)이 달라졌다고 주장한다. 다만 보쑤가 비교 분석대상으로 삼은 번역서는 1930년대와 1990년대의 것으로 상대적으로 큰 시대적 배경의 차이도 번역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문체 차이의 한 요인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거의 동시대에 출판된 번역서를 대상으로 하는 본고의 연구와 차이가 있다.

3. 분석 텍스트 및 분석방법

3.1 텍스트 소개

1925년 발표된 *The Great Gatsby*는 아메리칸 드림의 허황을 보여주는 스콧 피츠제럴드의 명실상부한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총 9장으로 구성된 이 소설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서론에서는 1인칭 서술자인 니이 주변 인물을 만나고 그들을 통해 주인공인 개츠비의 이야기를 전해 듣는다. 본문에서는 니이 소문으로만 듣던 개츠비를 직접 만나 그와 어울리게 되면서 개츠비를 중심으로 한 사건을 관찰자의 시점에서 묘사한다. 결론에 해당하는 7-9장에서는 사건이 극으로 치달으며 1인칭 서술자인 니이 개츠비에게 깊이 공감하고,

주변 인물에게 내린 평가와는 대조적으로 그를 ‘위대한’ 인물로 평가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끝난다.

서술방법은 대개 1인칭 서술자인 니이 여러 등장인물과 함께 사건에 얽히게 되면서 그들의 행동과 심리를 관찰자의 시점으로 전달하는 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1인칭 관찰자 시점은 독자가 등장인물의 내면에 깊이 접근할 수 없고, 따라서 인물에 대한 감정입을 어렵게 하는 한계를 지닌다(Liu 2010: 418).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자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서술방법 외에도 인물의 심리를 꿰뚫어 보는 듯한 3인칭 전지적 시점과 독자의 몰입을 최대화하는 2인칭 시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점을 도입하여 이야기를 전개한다. 특히 서술자인 니이 주변 인물을 향한 판단을 유보하는 처음의 방관자 입장에서 벗어나 내면적인 성장을 겪으며 개츠비에게 공감하고 그의 진가를 독자에게 보여주게 된다(고영란 2012: 2). 독자가 서술자인 니과 같은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가 등장인물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 파악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고영란(2012)은 일견 멜로드라마에 불과할 수 있는 『위대한 개츠비』가 많은 독자의 공감을 받는 이유는 이 소설의 독특한 서술전략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리우(Liu 2010) 또한 『위대한 개츠비』의 서술방법이 주제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여러 시점이 혼합된 이 소설의 서술방법이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몰입감을 높일 수 있는 저자의 의도된 전략이라고 분석한다. 따라서 『위대한 개츠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장치로 사용된 다양한 시점의 사용이 과연 번역 텍스트에서 그대로 재현되었는지, 혹은 변화가 있다면 그 배경이 무엇이고 그로 인한 효과는 어떠한지 분석하는 연구는 의미가 있다.

한편 *The Great Gatsby*의 국문 번역본은 수십 종에 이를 정도로 매우 많다. 그중에서도 본고에서는 2009년 문학동네에서 출판된 김영하 역의 번역서와 2019년 새움에서 출판된 이정서 역의 번역서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두 번역서를 선정한 배경은 직역과 의역 등 여러모로 상반된 번역전략을 표방했다는 점에서 두 번역의 시점 번역을 고찰하는 일이 유의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두 번역서가 각기 다른 전략을 취한 번역서라는 점은 출판사 서평과 역자 후기, 그리고 번역서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출판사 서평을 살펴보면 김영하 역은 ‘하오’나 ‘합쇼’체가 아닌 오늘의 시대에 걸맞은 말투를 사용하여 독자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번역하였다고 하였으며, 이정서 역은 최대한 직역에 가깝도록 문장부호나 접속어까지 그대로 살려 주면서 번역을 해 뜻도 더 분명해지고 저자의 의도를 더 잘 살릴 수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역자 후기에서 김영하(2009: 228-29)는 고등학생들이 『위대한 개츠비』를 두고 아주 재미없다는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우연히 듣고, 신선하고 재미있는 번역으로 소설을 읽혀야 한다는 부채감으로 『위대한 개츠비』를 번역하게 된 계기를 설명한 반면, 이정서(2019: 525)는 다소 어색할 수 있으나 직역으로 번역을 해야만 『위대한 개츠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음은 *The Great Gatsby*(이하 ST)의 첫 문장과 상응하는 김영하의 번역(이하 TT1), 그리고 이정서의 번역(이하 TT2)이다. 두 번역가가 취한 번역전략에 차이가 있음을 이 짧은 문장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ST) In my younger and more vulnerable years my father gave me some advice that I've been turning over in my mind ever since.

(TT1) 지금보다 어리고 민감하던 시절 아버지가 충고를 한마디 했는데 아직도 그 말이 기억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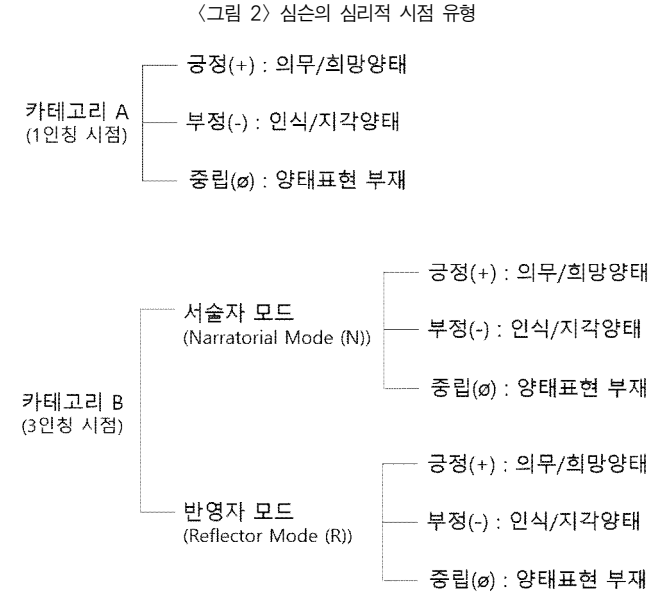
(TT2) 내가 젊고 더 상처입기 쉬웠던 시절 아버지는 내게 그때 이후 마음 속에 되새겨 오고 있는 어떤 조언을 주었다.

이상과 같이 *The Great Gatsby*에서 시점이 갖는 중요성과 분석 대상인 두 번역 텍스트가 각기 다른 번역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간단히 짚어보았다. 4장에서 본격적인 분석을 통해 각각의 번역서에서 서술자의 시점이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3.2 텍스트 분석방법

본고에서는 여러 학자가 제시한 다양한 심리적 시점 이론 중에서 서술자의 태도를 포괄해 더 입체적이고 다면적으로 시점을 살펴볼 수 있는 심슨의 모델(1993)을 따라 각 텍스트를 분석한다. 이 모델에서 분석 대상이 되는 주된 언어 표지는 심리지각어휘와 양태로, 이들은 독자가 인물을 이해하고 서술자의 감정

변화에 함께 동조하기 위해 서술자의 태도를 파악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심슨의 모델을 다시 간단히 정리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에서처럼 분석에서는 편의를 위하여 긍정양태는 ‘+’, 부정양태는 ‘-’, 중립양태는 ‘∅’으로 표기한다. 카테고리B에서 서술자 모드는 ‘N’, 반영자 모드는 ‘R’로 표기한다. 한편 심슨의 모델은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만을 대상으로 하나 본고에서는 *The Great Gatsby*에 등장하는 2인칭 시점도 번역 텍스트의 시점 변이 여부를 고찰하기 위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4. 분석 및 논의

4.1 1인칭 시점

*The Great Gatsby*에서는 1인칭 대명사로 표현되는 서술자 닉이 주변 인물

과 사건을 관찰하면서 그들을 향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서술방법이 주를 이룬다. 아래의 예를 통해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서술이 두 TT에서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차이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ST) I wanted no more riotous excursions with privileged glimpses into the human heart. Only Gatsby, the man who gives his name to this book, was exempt from my reaction—Gatsby who represented everything for which I have an unaffected scorn.

(TT1) 오만한 시선으로 다른 인간의 내면을 내려다보는, 그런 요란한 행보는 이제 피하고 싶었다. 오직 이 책에 이름을 제공한 개츠비, 내가 내놓고 경멸하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바로 그 인물에게만은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TT2) 나는 더 이상 사람의 마음을 특권적으로 힐끔 보는 방종한 유람을 원치 않았다. 오직 개츠비, 이 책에 그의 이름을 부여한 사내, 한때 내가 진심으로 경멸하던 모든 것을 대변하던 인물이기도 했던 개츠비, 그만은 예외였다.

위 장면은 서술자인 닉의 세상을 향한 부정적인 인식, 그리고 거기에서 제외되는 개츠비에 대한 감정을 드러낸다. ST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를 ‘privileged glimpses’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표현은 TT1과 TT2에서 각각 ‘오만한 시선’과 ‘특권적으로 힐끔 보는’으로 번역되었는데, TT1의 ‘오만한’이라는 심리지각어휘는 서술자인 닉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를 더욱 명시적으로 드러낸다. 한편 ST의 ‘was exempt’는 서술자의 감정이 배제된 중립양태의 표현이지만 TT1에서는 의무양태가 더해져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번역되었다. ST에서는 서술자의 의지에 의한 선택으로 읽히지만, TT1에서는 양태 추가로 마치 서술자가 자신의 능력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듯한 인상을 준다. ST의 시점은 카테고리A이며 TT2는 이를 유지하지만 TT1은 카테고리A+로 시점이 이동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6) 엄밀히 말하면 한국어에서 ‘-르수 있-’은 가능성, 허락, 능력을 모두 나타내는 양태표현으로서 별도로 ‘동적양태’(dynamic modality)로 분류된다. 다만 의무양태와 동적양태는 분명히 구분되지 않고 겹치는 영역이 존재한다(임동훈 2008: 228-29). 심슨(1993)의 모델에서는 동적양태 범주가 별도로 없으므로 의무양태로 분류하였다.

(ST) I shook hands with him; it seemed silly not to, for I felt suddenly as though I were talking to a child.

(TT1) 나는 그와 악수했다. 악수를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문득 내가 어린아이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TT2) 나는 그와 악수했다. 갑자기 내가 어린애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바보스럽게 여겨질 정도여서였다.

ST에서 1인칭 서술자인 닉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데 ‘seemed,’ ‘as though’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명제에 대한 서술자의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인식양태와 관련이 있으며 카테고리A-에 해당한다. 그러나 ST의 ‘seemed silly’가 TT1에서는 ‘어리석은 짓이었다’라는 단정적인 표현으로 번역되었으며 이는 명제에 대한 서술자의 불확실한 감정이 사라지는 효과를 낳는다. 카테고리A0로 시점이 이동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TT2의 경우 ‘-스럽게’라는 표현에서 서술자가 지니는 태도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보존되고 있으며 ST에서와 같이 카테고리A- 시점을 유지한다.

(ST) Every one suspects himself of at least one of the cardinal virtues, and this is mine: I am one of the few honest people that I have ever known.

(TT1) 모든 사람은 여러 주요한 미덕 중에서 최소한 한 가지쯤은 가지고 있지 않은가 싶은데, 내 경우에는 이것이다 :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정직한 사람들 중 하나다.

(TT2)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기본 덕목 가운데 하나에 대해 그 자신을 의심하는데, 내 경우는 바로 이것이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정직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일까 하는.

위 사례는 서술자가 자신의 인성을 스스로 판단하는 부분으로, ST에서는 어떤 양태 표현 없이 자기 스스로를 ‘몇 안 되는 정직한 사람’으로 단언하고 있다. 그러나 두 TT에서는 서술자의 태도에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두 번역에서 시점에 차이가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TT1의 경우 ST의 ‘suspect’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싶은데’로 번역하였는데, 이는 서술자의 불확실한 심리가 반영된 인식양태가 명시적으로 드러난 표현이다. ‘suspect’라는 단어가 본디

‘~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suspect’라는 단어 자체에 인식양태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따라서 TT1의 번역은 ST에 드러난 서술자의 시점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TT2에서는 ‘suspect’를 말 그대로 ‘의심하는데’라고 번역한다. ‘suspect’와 ‘의심’이라는 어휘 속에 모두 불확실성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할 때, ST와 두 TT 모두 카테고리A-의 시점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양태 표현으로 명시화했는지 여부에서는 차이가 있다. 또한 ST의 ‘I am one of’라는 단정적 표현이 TT1에서는 ‘하나다’로, TT2에서는 ‘한 명일까 하는’으로 달리 번역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T에서 서술자가 자기 자신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확인한 데 비해, TT2에서는 서술자가 자신을 평가하는 데 자신감이 결여된 듯한 느낌을 준다. ST의 서술은 카테고리A₀으로 TT1은 그 시점을 유지하는 반면, TT2에서는 카테고리A-로 시점이 이동하였다. 인물이 스스로를 평가하는 태도가 TT2에서 변경되면서 닉에 대한 독자의 이해도 달라질 수 있다.

4.2 3인칭 시점

『위대한 개츠비』는 1인칭 관찰자 시점에 의한 서술이 주를 이루지만 인물의 심리를 꿰뚫는 서술도 다수 등장한다. 닉이 등장인물을 만나기 전 그들에게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을 묘사하거나 그들의 세심한 감정을 단정적으로 표현할 때 특히 그러하는데, 1인칭 시점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3인칭 전지적 시점을 사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Liu 2010: 418). 다음의 예를 통해 3인칭 시점이 두 TT에서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ST) When they met again, two days later, it was Gatsby who was breathless, who was, somehow, betrayed.

(TT1) 그들이 이틀 뒤에 다시 만났을 때, 어쩐지 차인 듯한 기분을 맞보고는 숨이 막힐 것 같았던 쪽은 개츠비였다.

(TT2) 이틀 후, 그들이 다시 만났을 때, 숨쉬기조차 곤란했던 이는, 어쩐든 배신감을 느낀 이는 개츠비였다.

7) 메리엄-웹스터 영영사전에 따르면 “to imagine something to be true or likely”의 의미가 있다(www.merriam-webster.com).

ST의 ‘was breathless’와 ‘was somehow betrayed’는 개츠비의 내면 심리를 각각 단정적인 중립양태와 불확실성이 가미된 인식양태로 기술하고 있다. 전자는 카테고리B(R)₀, 후자는 카테고리B(R)-에 해당한다. 그러나 TT1에서는 각각의 표현이 ‘숨이 막힐 것 같았던’, ‘차인 듯한’으로 번역되었는데 이는 모두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인식양태가 부가된 표현으로, 카테고리B(R)- 시점으로만 기술되고 있다. 한편 TT2에서는 각각이 ‘숨쉬기조차 곤란했던’, ‘어쩐든 배신감을 느낀’으로 번역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모두 개츠비의 내면 심리를 단정적으로 나타낸다. TT1과는 달리 카테고리B(R)₀ 시점으로만 기술되고 있다. ST에 나타난 두 시점이 두 TT에서는 각기 다른 하나의 시점으로 단순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ST) But his heart was in a constant, turbulent riot. The most grotesque and fantastic conceits haunted him in his bed at night. A universe of ineffable gaudiness spun itself out in his brain while the clock ticked on the wash-stand and the moon soaked with wet light his tangled clothes upon the floor.

(TT1) 그러나 그의 마음은 지속적으로 격렬한 폭풍에 휩싸였다. 너무도 기괴하고 터무니없는 발상이 한밤중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곤 했다. 세면대 위의 시계가 똑딱거리고 달빛이 바닥 위에 어지럽게 영켜 있는 그의 옷가지 위를 축축하게 적실 때, 차마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조악하면서 화려한 하나의 세계가 그의 머릿속에서 파리를 틀기 시작했다.

(TT2) 그렇지만 그의 가슴속은 끊임없이, 혼란으로 들끓었다. 가장 그로테스크하고 환상적인 기발한 착상들이 밤이면 침대에 든 그를 홀렸다. 세면대 위에서 시계가 짹짹거리고 달빛이 축축한 빛으로 마루 위의 그의 널브러진 옷 위를 적시는 동안 형용할 수 없이 현란한 우주가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ST는 개츠비의 내면세계가 직접적으로 묘사되어 1인칭 관찰자 시점이 아닌 3인칭 전지적 시점에서 기술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두 TT는 모두 어떤 양태의 추가나 삭제 없이 ST의 시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다만 심리지각어휘 사용에서 두 번역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우선 ST를 보면 ‘turbulent riot⁸⁾’,

8) 메리엄-웹스터 영영사전에 따르면 잘 알려진 의미 외에 “one that is wildly amusing”

‘fantastic conceits’, ‘ineffable gaudiness’에서 볼 수 있듯이 반복적으로 부정적, 긍정적 어휘의 조합을 통해 개츠비의 내면을 드러냄으로써 3인칭 서술자의 심리적 시점 또한 복잡함을 암시하고 있다. 이 표현들은 TT1에서는 각각 ‘격렬한 폭풍’, ‘터무니없는 발상’, ‘조악하면서 화려한 세계’로 표현되어 대체적으로 부정적이거나 복합적인 감정으로 부각되고 있는 반면, TT2에서는 ‘혼란으로 들끓었다’, ‘환상적인 기발한 착상’, ‘형용할 수 없이 현란한 우주’ 등 긍정적인 분위기가 우세하게 표현되고 있다. ST에서 저자가 서술자를 통해 표현한 양면적이고 복잡한 심리가 두 TT에서 어떤 방향으로든 변이되고 단순화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예문을 통해 심리적 시점은 단어나 문장 그 이상의 차원에서도 분석할 수 있으며, 각 차원에서 번역에 변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ST) He came back from France when Tom and Daisy were still on their wedding trip, and made a miserable but irresistible journey to Louisville on the last of his army pay. (중략) Just as Daisy's house had always seemed to him more mysterious and gay than other houses so his idea of the city itself, even though she was gone from it, was pervaded with a melancholy beauty.

(TT1) 그가 프랑스에서 돌아왔을 때, 톰과 데이지는 아직 신혼여행 중이었다. 군대에서 받은 마지막 봉급으로 그는 루이빌로 향했다. 비참한 기분이었지만 그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중략) 데이지의 집이 그에게는 그 어떤 집보다 신비롭고 유쾌해 보인 것처럼, 그 도시 역시, 비록 그녀는 가고 있었지만, 우수에 찬 매혹으로 가득 차 보였다.

(TT2) 그는 톰과 데이지가 여전히 신혼여행 중일 때 프랑스에서 돌아왔고, 군대의 마지막 급료로 루이빌로, 비참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여행을 떠났다. (중략) 데이지의 집이 다른 집들보다 언제나 좀더 신비하고 흥겹게 여겨졌던 것처럼, 그 도시 자체에 대한 그의 생각 또한, 비록 그녀가 그곳을 떠났다 해도 우수에 찬 아름다움이 배어 있었던 것이다.

위 예시는 닉이 개츠비를 만나기 전 과거의 개츠비에게 있었던 일을 서술한 장면이다. 개츠비가 사랑하는 여인 데이지가 다른 남성(톰)과 결혼을 하고

의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www.merriam-webster.com).

난 후 느끼게 된 비참한 심정과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이와 결혼을 했음에도 그녀와의 추억이 깃든 곳을 찾아가 과거를 그리워하는 모습은 1인칭 시점의 닉이 관찰한 모습이라기보다 3인칭 전지적 시점에 의한 서술이라고 볼 수 있다. ST의 ‘miserable’과 ‘irresistible’은 그 뒤에 나오는 ‘journey’를 수식한다. 개츠비의 감정이 그가 떠났던 여정—비참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에 투사되어 간접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그러나 TT1에서는 ‘miserable’과 ‘irresistible’이 개츠비가 느끼는 직접적인 감정으로 드러나는데, 이는 ST에서보다 개츠비의 감정이 더욱 참담하게 와 닿는 효과를 지닌다. 이에 비해 TT2에서는 ST와 마찬가지로 개츠비가 떠난 여정의 성격을 통해 독자가 개츠비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ST와 TT2에서는 인물의 내부 의식을 직접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카테고리B(N) 시점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TT1은 인물의 심리를 다루는 카테고리B(R)에 해당한다.

한편 ST의 마지막 문장은 개츠비의 ‘머릿속(his idea)’이 테이지와 함께 했던 도시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의미로,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는 카테고리B(R)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TT2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TT1에서는 개츠비가 바라보고 있는 도시가 무언가로 ‘가득 차 보였다’라는 지각양태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는 개츠비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묘사하기보다 개츠비가 바라보는 ‘도시’의 이미지를 전달한다. 따라서 인물의 내부 의식을 직접 다루지 않는 카테고리B(N)로 시점이 이동했다고 볼 수 있다.

4.3 2인칭 시점

2인칭 시점은 1인칭 서술자가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취자(독자)를 2인칭 대명사인 ‘you’로 칭하면서 서술하는 방법으로 시점 연구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영역(Liu 2010: 419)이다. 이 점은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연구자들의 심리적 시점 모델에 2인칭 시점이 다루어지지 않은 데서도 알 수 있다. 본고에서 차용하고 있는 심슨(1993)의 모델에서도 2인칭 시점은 논의되지만 다양한 시점 사용을 특징으로 하는 *The Great Gatsby*에서는 2인칭 시점도 관찰되는 바, 해당 시점의 번역을 추가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번역 간 문체 차이를 고찰하는 데 유용하리라 본다. 아래 예문을 보자.

(ST) But above the grey land and the spasms of bleak dust which drift endlessly over it, you perceive, after a moment, the eyes of Doctor T.J. Eckleburg.

(TT1) 하지만 잠시 보고 있으면, 잿빛 대지와 그 위로 설새 없이 발작적으로 피어오르는 먼지 너머로 닥터 T. J. 에클버그의 눈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TT2) 하지만 그 잿빛 대지와 그 위를 끊임없이 떠도는 음산한 먼지의 발작 위로, 사람들은 잠시 후, 닥터 T.J. 에클버그의 눈을 지각한다.

닥터 T.J. 에클버그는 『위대한 개츠비』의 비극적 결말을 초래하는 중요한 사건⁹⁾이 발생하는 곳에 설치된 광고판에 등장한 치과의사이다. 얼굴과 코는 보이지 않고 오로지 커다란 눈만 있으며, 비밀을 숨기려고 해도 지켜보고 있는 시선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ST에서는 독자를 가리키는 ‘you’라는 대명사를 사용하여 독자로 하여금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라는 긴장된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러나 TT1과 TT2에서는 독자를 암시하는 2인칭 대명사는 찾아볼 수 없다. TT1의 경우 닥터 T.J. 에클버그의 존재를 인지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는데, 독자는 그 인물이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는 너이라고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TT2에서는 ‘사람들’이라는 제3자를 데려와 서술하고 있는데, 이 또한 너의 시선에서 진술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두 TT에서 모두 ST의 2인칭 시점이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2인칭 시점이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를 가깝게 하고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 또는 사건을 직접 대면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불러일으킨다는 점(Liu 2010: 419)에 비추어 두 TT에서는 그 효과가 사라지게 되었다.

(ST) It was one of those rare smiles with a quality of eternal reassurance in it, that you may come across four or five times in life. It faced—or seemed to face—the whole external world for an instant, and then

9) 개츠비와 데이지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데이지가 운전한 차에 데이지의 남편인 톰의 정부(윌슨 부인)가 치여 죽게 된다. 톰과 데이지는 이를 숨기고 개츠비가 범인으로 몰리게 되는데 결국 윌슨은 자신의 아내를 죽인 범인이 개츠비라고 오해하고 그를 사살한다. 차 사고로 윌슨 부인이 사망한 곳이 바로 광고판의 닥터 T.J. 에클버그가 내려다보고 있는 그곳이다.

concentrated on YOU with an irresistible prejudice in your favor. It understood you just so far as you wanted to be understood, believed in you as you would like to believe in yourself and assured you that it had precisely the impression of you that, at your best, you hoped to convey.

(TT1) 그것은 변치 않을 확신이 담긴, 일생에 네다섯 번쯤밖에 마주치지 못할 특별한 성질의 것이었다. 잠깐 전 우주를 직면(혹은 직면한 듯)한 뒤, 이제는 불가항력적으로 편애하지 않을 수 없는 당신에게 집중하고 있노라는, 그런 미소였다. 당신이 이해받고 싶은 바로 그만큼을 이해하고 있고,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갖고 있는 믿음만큼 당신을 믿고 있으며, 당신이 전달하고 싶어하는 호의적 인상의 최대치를 분명히 전달받았노라 확신시켜 주는 미소였다.

(TT2) 그것은 영원히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보기 드문 미소 가운데 하나였다. 당신이 인생에서 네댓 번 접할 수 있을까 말까 할만한. 그것은 일순간 외부 세계 전체를 향해 직시하고는—또는 직시한 듯하고는—그러고 나서 당신의 호의에 저항할 수 없는 편견으로 당신에게 집중하는 미소였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이해받고 싶어 하는 만큼만 당신에게 이해되는, 당신 스스로가 믿고 싶어 하는 만큼만 믿어지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최고의 상태에서, 당신이 전하길 희망하는, 당신의 인상을 확인시켜 주는 그런 미소였다.

위 예문은 너이 개츠비를 처음 만났던 때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으로 ST에서 서술자인 너은 ‘you’라는 2인칭 대명사를 빈번히 사용하여 자신이 개츠비에게 받았던 첫인상을 독자에게 더욱 현실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이는 독자가 마치 개츠비를 직접 대면하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며 독자는 개츠비를 처음 마주한 너에게 더 감정이입할 수 있게 된다. 앞선 2인칭 사례에 서와는 다르게 두 TT에서는 모두 ‘당신’이라는 대명사를 사용하여 2인칭 시점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출현 횟수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ST에서는 ‘you’라는 인칭대명사가 총 열두 번 등장하였으나 TT1에서는 여섯 번, TT2에서는 여덟 번¹⁰⁾으로 모두 축소되었다. 이는 우리말의 경우 주어나 반복되는 목적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으며, 영어에서는 명사 앞에 한정사를 필요로 하지만 우리말에서는 굳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생략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인

10) 2인칭 재귀대명사 ‘yourself’를 ‘스스로’라고 번역한 부분도 포함한 횟수이다.

칭 시점이 독자와 인물의 거리를 가깝게 한다는 효과를 고려했을 때(Liu 2010: 419), 결과만 보면 두 TT에서는 독자와 인물의 거리가 ST에서보다 더 멀어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차이는 번역가가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라기보다는 언어 구조의 차이에서 비롯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지 2인칭 대명사의 출현 횟수로 그 효과를 논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양태와 심리지각어휘에서 ST와 TT 간에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 ST의 ‘would like to believe’에서는 희망양태가 관찰된다. 해당 표현은 TT1에서는 ‘갖고 있는 믿음만큼’, TT2에서는 ‘믿고 싶어 하는 만큼만 믿어지는’이라고 번역되었다. TT2에서는 ST와 마찬가지로 희망양태로 서술되고 있으나, TT1에서는 양태가 사라지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번역되어 ST와 차이가 생긴다. 또한 TT1에서는 ST와 TT2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심리지각어휘가 사용되고 있는데 개츠비의 미소를 ‘특별한 성질의 것’이라고 설명한 부분과 독자로 지칭되는 ‘당신’이 개츠비에게 보내는 인상을 두고 ‘호의적’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그 예다.

지금까지 두 TT에서 번역가의 선택에 따라 ST에 나타난 심리적 시점이 어떻게 이동하였는지, 양태와 심리지각어휘의 유무나 변화에 따라 TT의 느낌과 질감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의 배경과 함의를 논하도록 한다.

4.4 분석 결과 논의

보즈-바이어(2006: 5)는 번역 문체를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하였다. 첫째, 번역에서의 문체 연구는 저자의 선택이 반영된 원천텍스트의 문체를 살펴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본고에서 분석한 원천텍스트에서 저자는 한 가지 시점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시점을 번갈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시점의 사용이 *The Great Gatsby*의 독특한 서술양식을 구성하며,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장치라는 점(고영란 2012; Liu 2010) 또한 알 수 있었다. 둘째, 원천텍스트의 문체가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다. 여기서 독자는 번역가를 포함한다. 독자인 번역가들이 똑같은 텍스트를 읽

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텍스트가 각자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를 수 있다. 분석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TT1과 TT2에서 나타난 시점 간 불일치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번역가의 선택이 목표텍스트에 반영된다는 점이다. 번역가는 원천텍스트를 접하고 자신이 느끼고 해석한 바를 목표텍스트에 표현한다. 이는 번역가가 원문에 개입한 흔적이자 번역가 고유의 문체로 이해할 수 있으며,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서로 다른 번역가의 선택이 늘 일치하지는 않는다. 넷째, 목표텍스트의 문체로 인해 목표문화권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번역가의 서로 다른 선택은 독자가 서술자나 등장인물의 태도, 등장인물과의 거리 등을 달리 인식하게 하여, 독자의 인물 성격 이해와 감정 이입의 정도에 차이를 유발할 수 있음을 사례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처럼 번역의 문체는 원천텍스트의 저자에서부터 시작하여 목표텍스트의 독자에 이르기까지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관찰할 수 있으며, 각각의 차원은 서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장선상에서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그렇다면 본고의 두 TT에서 번역 문체의 차이를 야기한 번역가의 선택에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 첫째, 번역가의 상반된 번역전략을 들 수 있다. 앞서 텍스트 선정에서 언급한 각 번역본의 출판사 서평과 역자 후기에 따르면 TT1은 ‘재미’를 목표로 한 번역인 반면 TT2는 ‘어색하더라도 원문을 따른다’는 원칙에 입각한 번역이다. 이를 방증하듯 TT1에서는 인물의 심리를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양태와 심리지각어휘를 더하여 독자의 감정에 적극 호소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직역을 강조한 TT2도 ST와 시점이 전부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인데, 이는 모든 번역가는 목표텍스트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다는 주장(Baker 2000; Hermans 1996)을 뒷받침하는 예가 될 수 있다.

두 번역가의 상이한 번역전략은 어휘, 문장구조 혹은 의미 전달에서도 드러났다. 자연스러운 우리말 구사를 위한 번역가의 판단과 개입이 번역 문체의 차이를 유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TT1의 경우 ST의 어휘를 사전적 의미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번역가가 그 의미를 헤아려 재창조한 흔적을 보이는 반면, TT2는 사전적 의미를 그대로 전달하는 경향이 짙다. 이를테면 ST의 ‘privileged glimpses’가 TT1에서는 ‘오만한 시선’으로, TT2에서는 ‘특권적으로 훔쳐 보는’으로 번역되었으며, ‘fantastic conceits’는 TT1에서는 ‘터무니없는 발상’으로, TT2에서 ‘환상적인 기발한 착상들이’로 번역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어휘뿐

아니라 문장의 구조에 있어서도 그러한데, TT1은 ST의 문장구조를 그대로 따르지 않는 반면 TT2는 ST와 구조 측면에서도 상당한 유사점을 지닌다. 결과적으로 두 TT 간 시점을 포함한 전반적인 문체 차이가 발생한 원인이 된다.

둘째, 두 번역가의 주 활동무대가 다르다. 김영하의 경우 번역가보다는 소설가로 왕성한 활동을 하며, 이정서의 경우 반대로 소설가이기도 하지만 번역가로서의 역할이 더 활발하다. 소설이 창작의 작업임을 고려하면, ST와 상대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는 TT1은 ‘소설가’로서의 의식이 보다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추론해볼 수 있다. 김영하 자신 또한 역자 후기에서 “이 소설에 대해서는 역자로서가 아니라 작가로서 할 말이 많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번역가가 어떤 선택을 왜 하는지, 그로 인해 어떤 문체를 구현하게 되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번역가의 배경을 살펴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Bosseaux 2007: 228).

물론 역자 후기 등의 곁텍스트 분석뿐만 아니라 번역 텍스트 자체의 분석에서도 번역가의 의도 또는 특징을 분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분석 사례에서 김영하가 번역한 TT1의 경우 ST와 TT2에 비해 양태와 심리지각어휘의 사용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는데, 이러한 특징이 독자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번역을 위한 번역가의 의도적 선택인지, 혹은 소설가 김영하 특유의 문체 특징인지는 그의 글들을 코퍼스 구축해 분석해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한 작품의 번역서를 고찰한 본고의 연구내용을 벗어나는 범위이므로 후속연구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5. 나가는 말

본 연구는 같은 원천텍스트에서 비롯한 다수의 번역 텍스트에서 독자가 받는 느낌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어떤 점에서 다르고 그 배경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에서 시작하였다. 본 연구자는 각 텍스트의 느낌이 달라지는 이유를 문체에서 찾고자 하였으며, 문체를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분석 요소 중에서도 시점, 그중에서도 심리적 시점에 주목하였다. 시점은 서술자가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방식으로, 서술자가 어떤 시점을 지니고 있는지에 따라 같은 내용도 매우 다르게 전달될 수 있다. 특히 심리적 시점과 긴밀히 연계된 양태와 심리지각

어휘는 서술자의 태도를 살펴볼 수 있는 유용한 지표다. 본고가 분석한 두 번역 텍스트에서는 양태와 심리지각어휘의 사용 양상에 따라 두 번역서가 독자에게 주는 느낌과 효과가 미묘하게 때로는 확연히 달라진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차이에는 번역전략, 인물과 사건을 바라보는 번역가의 인식, 번역가의 활동 배경 등과 같은 요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살폈다.

실제로 한 온라인 신문사에서는 김영하의 번역서를 두고 “피츠제럴드보다 김영하가 먼저 보인다. MSG를 넣은 개츠비요, 성형미인 개츠비다.”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또한 온라인 서점의 독자평을 살펴보면 김영하 번역에는 “위대한 개츠비를 읽고는 싶은데, 생각보다 진도가 잘 나가지 않는 독자라면 강추”, “우리가 쓰는 언어 습관과 언어도 변했기에 최근에 번역한 『위대한 개츠비』를 권한다”는 등 쉬운 접근과 가독성을 중심으로 평가한 후기가 많았으며, 이정서 번역에는 “원문 표현 위주로 되어 있어 몰입감이 좀 떨어지는 느낌”, “불친절하기는 하지만 이정서의 번역으로 탄생된 문장이 보다 강렬하고 실제적인 가치를 지닌다”는 등 원문 중심적인 번역으로 평가하는 후기가 많아 대체로 양 번역에 대한 상반된 반응을 찾아볼 수 있다. 본고의 분석 결과에 나타난 두 번역의 문체 차이에 대한 독자 반응을 간접적으로나마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간 번역에서의 문체는 활발한 연구 대상이 아니었으며 영어권에서조차 문체를 번역학에 접목한 연구자는 보즈-바이어(2006)가 사실상 최초라 할 수 있다(이영훈 2014: 65). 번역 문체 연구는 번역 논의에서 자주 언급되는 직역과 의역, 오역 여부 등 흑백논리나 가치 판단을 벗어나 번역가의 선택에 따른 다양한 번역 양상을 논의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해준다. 본고의 학술적 의의 또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단 본고의 연구는 전체 텍스트를 살피지 못하고 사례 분석에 그친 점, 시점의 변화로 인해 실제 독자가 느끼는 바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독자의 반응을 보다 직접적이고 심도 깊게 살펴보지 못한 점 등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번역본이 어떻게 독자에게 다른 인상과 느낌으로 다가갈 수 있는지, 번역이 원문과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의 텍스트로서 자체적인 문체를 발현하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하나의 연구사례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후속연구를 기약하기로 한다.

참고문헌

- 고영란 (2012) 「‘위대한’ 개츠비를 위한 서술기법」, 『근대영미소설』 19(1): 5-32.
- 김동미 (2007) 「문학작품의 ‘여성 번역가’ 문체 연구— 화용·통사론적 특징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8(1): 37-60.
- 박중홍 (2010) 「최명익 창작집 삼삼이사의 초점화 양상 고찰」, 『국어교육연구』 46: 335-362.
- 박진수 (2003) 「소설의 번역과 시점의 문제—가와바타 야스나리 『설국』의 영어 번역과 한국어 번역을 중심으로」, 『비교문학』 31: 1-15.
- 송요인 (2014) 「문체의 제 문제」, 조의연 (편저), 『번역문체론』, 서울: 한국문화사, 17-36.
- 유한내 (2014) 「『위대한 개츠비』의 번역자별 문체 분석: 선택적 변이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5(1): 135-153.
- 이경희 (2015)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Cathedral)』과 그 번역본에 나타난 시점 연구—양태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훈 (2014) 「번역문체론 연구동향, 주요문헌 해제, 참고서지」, 조의연 (편저), 『번역문체론』, 서울: 한국문화사, 65-107.
- 임동훈 (2008) 「한국어의 서법과 양태 체계」, 『한국어어미학』 26: 211-249.
- 조의연 (2012) 「번역가의 문체선택 연구—『호밀밭의 파수꾼』 번역 텍스트 비교 분석」, 『번역학연구』 13(5): 197-221.
- 조일제 (2010) 『영어 산문 텍스트의 문체론적 분석—외국어 교육의 한 가지 접근법』, 서울: 한국문화사.
- Baker, Mona (2000) 'Towards a Methodology for Investigating the Style of a Literary Translator', *Target* 12(2): 241-266.
- Boase-Beier, Jean (2006) *Stylistic Approaches to Translation*, Manchester: St. Jerome.
- Bosseaux, Charlotte (2007) *How Does it Feel?: Point of View in Translation*, Amsterdam & New York: Rodopi.
- Chatman, Seymour (1978) *Story and Discourse*, Ithaca & London: Cornell UP.
- Enkvist, Nils Erik (1964) 'On Defining Style', in John Spencer, Nils Erik Enkvist and Michael Gregory (eds) *Linguistics and Style: On Defining Style, an Essay in Applied Linguistics*, London: Oxford UP, 1-56.
- Fowler, Roger (1986/1996) *Linguistic Criticism*, New York: Oxford UP.
- Hartwell, Patrick (1982) *Open to Language: A New College Rhetoric*, New York: Oxford UP.
- Herman, David, Manfred Jahn and Marie-Laure Ryan (eds) (2005) *Routledge Encyclopedia of Narrative Theory*, London & New York: Routledge.
- Hermans, Theo (1996) 'The Translator's Voice in Translated Narrative', *Target* 8(1): 23-48.
- Lanser, Susan Snider (1981) *The Narrative Act*, Princeton: Princeton UP.
- Leech, Geoffrey and Michael Short (2007) *Style in Fiction*, second edition, London: Longman.
- Liu, Xiangqi (2010) 'Stylistic Analysis of *The Great Gatsby* from Context Category', *Journal of Language Teaching and Research* 1(4): 416-425.
- Malmkjær, Kirsten (2004) 'Translational Stylistics: Dulleken's Translations of Hans Christian Andersen', *Language and Literature* 13(1): 13-24.
- Neary, Clara (2014) 'Stylistics, Point of View and Modality', in Michael Burke (ed.) *The Routledge Handbook of Stylistics*, London & New York: Routledge, 175-190.
- Simpson, Paul (1993) *Language, Ideology and Point of View*, London & New York: Routledge.
- Simpson, Paul (2014) *Stylistics: A Resource Book for Students*, second edition, London & New York: Routledge.
- Uspenski, Boris (1973) *A Poetics of Composition* (tr. Valentia Zavarin and Susan Wittig),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Wales, Katie (2001) *A Dictionary of Stylistics*, London: Longman.
- <인터넷 자료>
 메리엄-웹스터 영영사전 www.merriam-webster.com
 어수용 (2013. 5. 9) 「김영하가 ‘창조’한 개츠비」, 『조선닷컴』, 2019년 9월 4

일 검색,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13&M=05&D=09&ID=2013050900069.

TT1 온라인서점 예스24 출판사 서평, 2019년 5월 29일 검색, <http://www.yes24.com/Product/Goods/3636227?scode=032&OzSrank=3>.

TT2 온라인서점 예스24 출판사 서평, 2019년 7월 14일 검색, <http://www.yes24.com/Product/Goods/74418784>.

<분석 텍스트>

ST: F. Scott Fitzgerald (1991) *The Great Gatsby*, Cambridge UP.

TT1: 김영하 옮김 (2009) 『위대한 개츠비』, 서울: 문학동네.

TT2: 이정서 옮김 (2019) 『위대한 개츠비』, 서울: 새움.

[Abstract]

**The Psychological Point of View in Two Korean Translations of
The Great Gatsby: A Stylistic Study on Modality and *Verba Sentiendi***

Lee, Sae-hee · Choi, Hee-kyung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ranslations from the same source text are often perceived differently by readers mostly due to stylistic features. Defined as style markers, these features can be analyzed through various linguistic units. Among other elements, point of view is worthwhile exploring particularly in literary narratives as prior research posits that it has substantial effects on the way a text is read and received by readers.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seeks to examine how the distinctive use of point of view in *The Great Gatsby* is translated in two of its Korean translations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drawing on Simpson's (1993) model with modality and *verba sentiendi* incorporated as key style markers. Findings reveal that the two translators make distinct choices in terms of modality and *verba sentiendi*, which may evoke different feelings and responses for readers. Further analysis into the metadata of the translations indicates that the translators' proclaimed strategies and their professional backgrounds are part of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translator's style.

▶ Keywords: literary translation, stylistics, translation style, translator's choice, psychological point of view

▶ 주제어: 문학번역, 문체론, 번역 문체, 번역가의 선택, 심리적 시점

이세희(제1저자)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영어번역학과 석사과정

shsshwa@naver.com

관심분야: 문학번역, 번역문체론, 코퍼스 기반 번역학

최희경(교신저자)

한국외국어대학교 EICC학과 조교수

trans.hufs@gmail.com

관심분야: 코퍼스 기반 번역 연구, 번역 문체 연구, 번역교육

논문투고일: 2019년 8월 3일

심사완료일: 2019년 8월 28일

게재확정일: 2019년 9월 16일